지난해 11월 박민 취임 후 하락세 뚜렷  
  
  
  
  
  
  
  
박민 한국방송(KBS) 사장(왼쪽 셋째)과 임원진들이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아트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지난해 박민 사장 취임 이후 한국방송(KBS) 시사·교양 라디오 유튜브 채널 조회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유튜브 데이터 분석 서비스 플레이보드 통계를 보면, 최근 ‘KBS1라디오’ 유튜브 채널의 월 조회수 하락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10월 2900만회였던 월 조회수는 박민 사장이 취임한 11월 1425만회로 한 달 만에 반 토막 났다. 이후 12월에 다시 63%가 빠지면서 526만회를 기록했고 이후 360만∼400만대를 오가며 서서히 줄어드는 중이다. 박민 사장 취임 6개월 만에 월 조회수의 약 86%가 빠진 것이다.  
  
  
  
  
  
  
  
한국방송 유튜브 ‘KBS1라디오’ 채널의 지난 8개월 월 조회수 그래프. 플레이보드 누리집 갈무리메인뉴스 시청자수 역시 꾸준히 감소 중이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 집계(수도권 기준)를 보면 지난 1년간 흔들림 없이 메인뉴스 시청자수 1위를 지켜왔던 한국방송은 지난달 64만5200명대를 기록하며 문화방송(MBC·66만6500만명)에 정상을 내줬다.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 방송 때도 최근 선거에서 9% 후반대 시청률로 1위였던 한국방송은 5.2%를 기록해 문화방송(10.4%)에 크게 밀렸다.한국방송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쇠퇴는 편성·제작 독립성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박민 체제’ 6개월의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12일 박 사장 취임 직후 한국방송은 저녁 뉴스 앵커진을 교체하고 ‘주진우 라이브’, ‘최강시사’ 등 라디오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더 라이브’ 역시 하루아침에 편성표에서 사라졌으며, 제작 중이던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도 불방 통보를 받아 무산됐다.